

여성학, 그 변화의 시작과 과제

장 필 화 ! 이화여대 아세아여성학센터 소장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철학이나 신학, 그리고 그보다는 역사가 짧다 하더라도 수 백년 동안 발전해 온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비교해 보면, 여성학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여성학을 왕성한 젊음과 싱싱함을 가진 야심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성학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 세계의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파악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지나간 20세기는 세계대전 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냉전을 통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내전 등을 통하여 가히 역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세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물질적으로는 그 전 세기에 누려 보지 못했던 풍요를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풍요의 세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인권 개념이 당연한 가치로 자리를 잡은 세기라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가 때로 경협하는 인간 역사에 대한 비관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인권의 개념에 기반하여 법 제도와 정책이 발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권 개념은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사회운동으로 확산

되어 점차 법과 제도 수립으로 연결되며 관행으로 이어진다. 여성 인권을 확장하기 위한 여성운동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성과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여성학을 탄생시켰다. 유엔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정하고 '여성, 발전, 평화'를 위한 10년 계획을 시작한 것 또한 여성운동이 이룩해 온 성과인 동시에 여성 인권을 정착시키고자 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한국에서는 1977년에 여성학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교양과목으로 처음 개설된 이후 약 10여 년만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여성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이 개설될 만큼 여성학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되었다. 교육과정 내 여성학 현황을 살펴 보면 1999년 현재 10개 대학에 여성학과 혹은 대학원 여성학 협동 과정이 있으며, 4개 대학에 학부 여성학 연계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미 1984년에 한국여성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99년 현재 19개 대학에 여성연구소가 설립되어 학술지 발간, 여성학 연구 과제 수행, 학술 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성학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이재경, 2000).

20세기 후반의 학문은 그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기존 학문과 지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온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주장해 왔으나 그 중 많은 것이 식민주의적, 인종차별적, 또는 계급 차별적인 편견과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 분석의 결과로 한 겹씩, 한 겹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학은 기존의 학문과 지식이 갖고 있는 남성중심성과 성편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학은 그 문제 영역과 비판의식, 그리고 그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부장제 사회구조가 야기해 온 여성억압의 기제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를 변혁시키려는 분명한 문제의식과 목표가 있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형시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총체적인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여성학이 지향하는 변화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성학에서는 이러한 가치 지향을 선두부터 천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전통 학문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여성학의 가치 지향적 목표 의식은 객관적 사실과 가치중립적 분석에 근거한 과학적 지식만이 올바른 지식일 수 있다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성 문제는 사회과학 내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완전한 객관성이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의 객관성이란 가치중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 '반권위주의', '반엘리트주의', '참여와 해방' 등의 가치에 기반한 작업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조형, 1992).

과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합

리적인 지식의 체계이며, 객관성과 논리적 일관성, 보편타당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 지식을 통하여 인간은 그릇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세계를 보다 잘,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가 더 많은 객관성을 획득한다는 말과 통한다.

여성학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지식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남성중심적 편견을 찾아내고 이제까지 간과되어 온 여성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려는 시도를 한다. 여성학 연구는 그동안 기존 학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드러내는데 열중해 왔으며, 기존의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보는 것'과 이제 '보이게 된 것'에 이름을 주고 탐구해 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기'에 그 이름을 짓고 '산소'라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 기능을 파악하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의 상태를 상상하고 더 나아가서 진공 상태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등의 탐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 비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학의 정립 과정은 여성의 활동과 학문에 대해 새로운 명명 작업을 시도하고, 새로운 연구 내용을 정립하며,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여성학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여성차별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나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여성운동을 시작하고 여성학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른바 '여성문제'는 산발적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질서' 혹은 '체

“

여성학은 그 문제 영역과 비판의식, 그리고 그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부장제 사회구조가 야기해 온 여성억압의
 기제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이를 변혁시키려는
 문명한 문제의식과 목표가 있는 것이다.

”

계'가 필요하다.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여성차별'의 기원은 무엇인지, 이를 유지시키는 기제는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지향 가치로부터 출발하여 여성학은 지금까지 학문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여성학의 발전 단계를 보면 교차학문적(cross-disciplinary) 접근 단계,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 단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 단계,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 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교차학문적 접근 단계는 한 분야의 학문적 방법으로 다른 분야의 여성 관련 문제를 접근하는 단계, 다학문적 접근 단계는 여러 학문분과의 학자들이 단일 문제를 각각 접근하는 단계, 학제적 접근 단계는 각자의 학문 분과의 방법을 여성 문제에 결합적으로 적용시켜 연구하는 단계, 그 후 초학문분과적 단계에서는 개별 학문분과의 경계를 넘어서 여성 문제에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학은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모색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각 학문 분과에서는 여성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학의 페러다임은 화

폐를 매개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사 노동을 행하는 여성 대다수의 무보수 노동은 그것이 한 사회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무보수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석을 한다면 경제학 자체가 변형될 수밖에 없다. 정치학의 경우에도 정치체제나 제도에 한정된 현재의 틀을 벗어나서 권력 관계가 개입된 사적인 관계들, 이웃, 학교, 교과과정, 가족,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등과 같이 정치기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정치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성의 역할을 현실화 할 수 있고 '정치'라는 개념 또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다양한 분과에서 시도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의 접목은 학문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각 학문분과의 범위와 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학문 영역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에 따라 학문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변화의 폭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철학의 경우를 살펴 보면 기존의 학문적 내용들이 남성중심주의의 편파성과 정치성을 떠먼서 여성들의 삶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전통 철학의 남성중심주의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은 여성주의 인식론을 포함하여 여성주의 철학을 형성,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이상화, 2000). 사회학에 있어서는 여성학이 사회학의 연구 내용 및 방법론, 이론적 범주의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성학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조순경, 1992). 또한 여성학은 여성 신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인식론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 신학의 발전은 여러 분야의 관점의 변화를 비롯하여 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장상, 1992).

문학 영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문단, 비평, 창작에서 페미니즘 이론이 수용되고 그로 인한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문학 이론이 정립되었다. 여성학은 여성 경험이 문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마련해 주었으며 여성 작가들이 창작을 하거나 비평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김현숙, 2000). 가정학에서는 여성학적인 문제 접근 방식 및 문제 해결 방안이 기존의 가정학에 자극이 되었다. 또한 여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학과 가정학에서는 종래의 연구 방향을 확대시켜 개인과 가정, 사회나 국가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문숙재, 1992). 언론학의 경우에도 '80년대부터 여성주의가 수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디어의 성차별적인 현실 구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최선열, 2000).

그렇지만 여성학은 종종 '너무 협소하고 사소한, 특수한 이해관계'의 문제에 집착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지어 온 구조를 파악하려면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이웃 혹은 학교 등의 중간 차원, 국가라는 거시적 차원, 지역과 지구라는 지구적 차원과 그 영향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차원을 이해하고 각각의 차원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학 강의나 프로젝트들은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의 지적, 실험적, 정서적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개인의 자각과 이에 따른 노력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간의 행위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한 믿음 하에서 교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교수는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전승하는 권위를 갖고 있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어떤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상호작용 하면서 여성의 삶을 자신의 관점, 타인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과정을 지속한다면 보다 넓은 학문적 탐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이 그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발할 수 있을 때 여성학은 비로소 그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장필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 Hull University에서 여성교육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영국 Sussex University에서 여성과 발전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장, 서울 여성노동자회 이사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장, 국민경제지문회의 지문위원, 한국여성학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로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여성, 몸, 성」(1999), 「여성주의 윤리 : 성 상품화 문제를 중심으로」(1998) 외 다수가 있다.